

# 대학의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안태숙<sup>1</sup>, 유영주<sup>2\*</sup>

<sup>1</sup>강원관광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 교수, <sup>2</sup>동원대학교 실버보건복지과 교수

## Effects of Career Guidance Courses on Self-Efficacy in Career Path Decisions and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ae-Sook Ahn<sup>1</sup>, Young-Ju Yu<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Tourism College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T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된 진로지도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효과 변인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의 2학년 학생 33명으로, 15주차의 진로지도 교과목을 수강하였다. 연구방법은 동일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로, 진로지도 수강 전·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교과목 수강 전보다 수강 후가 높게 나타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수강 전·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과정의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향상에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대학 교과목 수업, 진로지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교육적 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ducational effects of career guidance classes, which are now included in regular course offerings by universities. To this end,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regarding career decisions and their degree of career maturity was measured as effect variable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33 sophomores who took 15 weeks of career guidance classes provided by four-year universities. Pretest-posttest design and the paired t-test were conducted for verifying th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aking career guidance cour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was higher after taking the career guidance courses, indic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t-value for th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aking the career guidance courses was indicating that there was a slight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ed that career guidance courses in higher education had the educational effects of improving self-efficacy in career path decisions and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University classes, Career guida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Educational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Young-Ju Yu(bona16@tw.ac.kr)

Received August 25,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3,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 1. 서론

진로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고 변화되는 과정이다[1]. 진로는 직업을 탐색한다는 의미보다 더 폭넓은 개념으로 개인의 가치관, 일, 심리적 만족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삶의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2-3]. 오늘날 우리사회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거의 무너지고 평생직업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4-5].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일생동안 당면하는 진로관련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나타난다[2].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당면한 진로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진로모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2].

Super는 진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려는 삶의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1,2]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자기실현과 생애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각 연령대별로 달성해야 할 진로발달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생애발달 과정 중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시기로[1]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3].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8년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보고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57.9%)'로 나타났고,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생활에 있어 진로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4,5]. 이는 대학입시 위주의 중등교육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중등교육과정의 진로상담 및 지도는 주로 학생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상 대학에 들어오면 대학생은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흥미, 적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됨[6,7]에 따라 중등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진로발달과업을 재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학생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진로선택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위한 심도 있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5-7].

오늘날 대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생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4,8].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고용환경과 정량적인 성과지표로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교육환경은 경직된 전공중심의 교육내용에서 자격 취득이나 직무경험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6-8, 21].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의 대학은 진로지도 교과목을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수에 의한 학생 진로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4,28].

대학의 진로지도는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하는 방식과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특강, 전문가 초청특강이나 워크숍, 직무체험 등의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12,13]. 전자의 경우 Youn[13]의 연구에서는 비교과방식의 진로지도보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대학생의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진로지도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9-11,13]. 더 나아가 진로지도 수업의 운영이 대학생의 진로 관련 역량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진로지도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단편적인 지도로 실제 제공하는 진로지도의 질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4,8]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수업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2]. 또한 취업지원의 일회성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졸업을 앞둔 고학년 대상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별 학생의 욕구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부족한 형편이다[10].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취업성공에만 치우쳐 있어[11,23] 교육적 측면에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나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발달과업의 수행력 향상 및 그에 따른 학습효과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다[11].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진로탐색

을 통한 진로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고민 사항으로 취업준비에 대한 걱정, 진로목표가 불명확함, 적성을 모르겠음, 직업선택 및 구직방법을 모름, 전공에 대한 불만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진로 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시기에 대해서는 1학년부터 참여하고 싶다는 대학생이 37.1%, 2학년부터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33.8%로 나타남에 따라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진로발달이론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 중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업내용을 구성하였다.

진로성숙도란 자아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 생애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준비정도와 대처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진로문제에 대한 발달론적 접근에서 등장한 개념이다[19,23].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둔 대학의 기능 변화는 대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아탐색의 기회의 부족을 보였으며[15], 자기이해가 부족한 대학생은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진로에 대한 성숙도나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14,15,24]. 또한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인식은 곧 자신의 성격과 흥미,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진로발달을 가져오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킨다[2]. 이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관련이 있다[16,26].

자기효능감은 Bandura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16-17]. 이 개념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Betz와 Hackett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선택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18,2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으면 진로결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거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으면 요구되는 과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된다고 하였다[19,25-26].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개인의 진로탐색 활동, 직업선택

등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볼 수 있다[17,26]. 우리나라 4학년 대학생들 중에 40%가 아직 진로결정을 못하고 있음[26]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인식을 토대로 한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공의 이해와 체계적인 진로설계가 필요한 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측정값의 유의미한 차이 검증을 통하여 대학의 정규교과목으로 저학년에 개설된 진로지도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동일집단 사전-사후조사실험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지역의 4년제 대학에 개설된 교양필수교과목인 진로지도 강의를 수강하는 사회복지전공의 2학년 대학생 33명이었다.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협조 및 동의를 구하고 1주차 수업 시작 전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지도 수업은 15주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수업종결 후 사전조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 설정의 부재에 따른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답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과 측정시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사환경을 조성하였다.

### 2.2 진로지도 수업내용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수업내용은 Super의 진로발달이론과 Holland의 성격유형론을 토대로 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CDP-C, Career Development Program-College)과 대학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직업·진로탐색, 인생설계와 직업·진로탐색, 자기계발과 인생설계, 인성과 진로 등의 진로 관련 도서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9,20,21].

Table 1. Career guidance activities

W	Activity Details
1	- Orientation - Completing preliminary survey questionnaires
2	- Setting up a one-week time schedule - Creating a spend analysis table to determine time needed for each major activity
3	- Creating life cycle graph 1: life until the present - Writing a self-reflection journal, making presentations and sharing, and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4	- Creating life cycle graph 2: life to the age of 100 - Writing a self-reflection journal, making presentations and sharing, and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5	-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feeling)? (using post-it notes) - Sharing peers' thoughts about me
6	- MBTI personality test : interpreting and sharing regarding 16 personality types - Watching team play video (MBTI personality test) -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yself 1 : review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MBTI result
7	- Vocational value test : interpreting and sharing - Vocational aptitude test : interpreting and sharing
9	-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ory test : interpreting and sharing
10	-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yself 2 Review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based on psychological examination results(job value, job aptitude, and career preparation)
11	- Career information searching activities: selecting types of qualifications and searching for necessary information - Selecting occupational fields through information search(job title, qualification requirements, salary and benefits, screening methods, presentations, and sharing)
12	- Surveying occupational groups related to major fields of interest(job title, job description, job outlook, and necessary preparations and efforts) - Establishing a using
13	- Manual for how to use myself(i.e., What kind of social worker do you want to be for yourself, your colleagues and clients, and in the field?)
14	- Career development planning for college students: identifying specific goals, action plans, expected obstacles, and essential preparations for the period ranging from winter break of the second semester to the second semester in the fourth year - Completing follow-up survey questionnaires

선행연구와 대학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도서들의 진로지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진로지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자기이해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등에 관한 자각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조망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었다. 둘째는 자기이해를 토대로 진로계획 수립, 취업의 과정과 의미, 직업과 산업의 이해, 전공과 취업준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진로지도는 수강생의 특성에 따라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는데, 그 활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기이해와 인생설계는 대학 저학년에게, 진로설계에 따른 진로와 취업준비와 관련한 노동시장의 이해는 대학 고학년에게 적합하다고 보았다[21].

선행 진로지도 수업 구성에 있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흥미 탐색, 적성, 가치관 등을 알아보는 자기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인간발달과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본 Super는 자기이해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Holland는 개인의 직업적 흥미는 곧 개인의 성격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개인의 적성이나 성격적 특성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진로지도의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자기실현과 생애발달 과정으로 본 Super의 이론을 주축으로 하여 대학생의 자기이해와 진로성숙도를 도모하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Holland의 이론을 진로지도에 대한 횡적인 접근을 통해 대학생 개인의 적성이나 성격적 특성을 진로결정과 연결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심리검사와 진로설계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조력하였다[2]. 정규교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운영된 진로지도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1>와 같다.

### 2.3 측정도구

#### 2.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계획이나 진로탐색 등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한다[17,19].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Taylor와 Ben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이기학과 이학주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척도화한 것을 활용한 광미숙(2015)[1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광미숙(2015)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91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사전, 사

후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전, 사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전 신뢰도는 .927, 사후 신뢰도는 .949이었다.

2.3.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직업선택에 있어 개인이 갖는 올바른 선택 능력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지하는 수준이며, 진로발달과정 중에 나타나는 관련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직업적 준비정도를 말한다[6]. 즉, 직업선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삶의 방향과 생애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진로태도의 성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박세진(2018)[22]의 진로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확신성, 결정성, 준비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항목의 진로성숙도 신뢰도는 .91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진로성숙도 신뢰도는 .902, 사후 진로성숙도 신뢰도는 .926이었다.

2.3.3 사전·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사전 .927, 사후 .949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Table-2>와 같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문항들의 사전 신뢰도가 .621로 나타남에 따라 문항을 제거해 가면서 크론바 알파값을 살펴보았다. Van de Ven & Ferry(1980)[27]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크론바 알파값이 0.60이상이면 척도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당 문항을 제거했을 때 오히려 신뢰도가 낮아짐에 따라 이미 이 측정도구가 0.60이상의 알파값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항목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해서 사용하였다[27].

Table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eliability

Contents	Number of questions	Scale	Cronbach's $\alpha$	
			Pretest	Posttest
Goal Selection	11	5	.814	.894
Job Information	6	5	.739	.814
Problem-solving	3	5	.621	.803
Future Planning	5	5	.840	.804
Total	25	5	.927	.949

2.3.4 사전·사후 진로성숙도의 신뢰도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Likert 척도로 구성된 진로성숙도 척도는 총 17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문항제거 시  $\alpha$  계수에서도 특별히 신뢰도를 저해하는 개별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Table-3>과 같고, 전반적인 진로성숙도 척도의 신뢰도는 사전 .902, 사후 .926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3. Career Maturity Reliability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Scale	Cronbach's $\alpha$	
			Pretest	Posttest
Confidence	8	5	.800	.859
Decisiveness	6	5	.909	.914
Readiness	8	5	.740	.806
Total	17	5	.902	.926

2.4 자료분석

진로지도 교과목 수강으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동일 측정도구의 반복측정에 따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대학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응표본 상관관계

3.1.1 사전·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 상관관계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사전, 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측정값의 변화 정도와 방향을 파악한 결과, 사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수쌍은 상관계수가 -0.069, 유의수준 0.703으로 유의하지 않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매우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대학생의 목표선택, 문제해결 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은  $p < .05$ 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e-pos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Variables		N	r	Sig.
Cor.1	Pre_Goal Selection & Post_Goal Selection	33	-.363*	.038
Cor.2	Pre_Goal Selection & Post_Goal Selection	33	-.308	.081
Cor.3	Pre_Problem-solving & Post_Problem-solving	33	-.372*	.033
Cor.4	Pre_Future Planning & Post_Future Planning	33	-.044	.808
Cor.5	Pre_Career-making Self-efficacy & Post_Career-making Self-efficacy	33	-.069	.703

\*p<.05

3.1.2 사전·사후 진로성숙도간 상관관계

진로성숙도의 사전·사후 점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08, 유의수준 0.019(p<.05)로 나타남에 따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re-post career maturity**

Variables		N	r	Sig.
Cor.1	Pre_Confidence & Post_Confidence	33	-.208	.244
Cor.2	Pre_Decisiveness & Post_Decisiveness	33	-.031	.864
Cor.3	Pre_Readiness & Post_Readiness	33	-.320	.070
Cor.4	Pre_Career Maturity & Post_Career Maturity	33	-.408*	.019

\*p<.05

3.2 대응표본 T-검증 결과

3.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차이검증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집단 사전, 사후검 사점수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45, 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4.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4.862, p=.000으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진로지도 수업에 의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 효과를 제시하였다.

**Table 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test**

Contents		N	Mean	SD	t(p)	
Pair 1	Goal Selection	Pre	33	3.20	.58	-5.048*** (.000)
		Post	33	4.05	.59	
Pair 2	Job Information	Pre	33	3.08	.59	-5.525*** (.000)
		Post	33	4.00	.58	
Pair 3	Problem-solving	Pre	33	2.73	.78	-5.421*** (.000)
		Post	33	3.99	.83	
Pair 4	Future Planning	Pre	33	3.24	.75	-7.619*** (.000)
		Post	33	4.41	.43	
Pair 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e	33	3.45	.81	-4.862*** (.000)
		Post	33	4.27	.47	

\*\*\*p<.001

3.2.2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차이검증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3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측정된 진로성숙도의 점수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검증한 결과는 <Table-7>과 같다.

**Table 7. Career Maturity T-test**

Contents		N	Mean	SD	t(p)	
Pair 1	Confidence	Pre	33	3.80	.52	-4.663*** (.000)
		Post	33	4.43	.47	
Pair 2	Decisiveness	Pre	33	2.71	.88	-6.270*** (.000)
		Post	33	4.06	.84	
Pair 3	Readiness	Pre	33	3.54	.79	-4.692*** (.000)
		Post	33	4.44	.54	
Pair 4	Career Maturity	Pre	33	3.86	.81	-3.493** (.001)
		Post	33	4.51	.44	

\*\*p<.01, \*\*\*p<.001

진로지도 수강 전 진로성숙도 평균점수가 3.86에서 수강 후 진로성숙도 평균점수가 4.52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t=3.493, p=.001으로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모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결정성 요인이 가장 높게 향상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의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된 진로지도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변인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사전·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지도 수강 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값 평균은 3.45점, 수강 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값 평균은 4.27점으로 진로지도 수강 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값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t=-4.862, p<.001$ ). 이러한 결과는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위요인으로 목표선택은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직업정보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17]으로 이에 대한 사전 사후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진로지도 수업이 학생들의 직업선택 및 구직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수준[4,5]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사전 측정값 평균이 2.73점으로 가장 낮았던 문제해결 영역은 사후 측정값 평균이 3.99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업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등의 5문항[17]으로 구성된 미래계획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19,25]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요구되는 과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진로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향상은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의 교양필수교과목으로 개설되어 한 학기 동안 운영되었고, 수강한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기이해와 진로계획 관련 활동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진로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지도에 있어 대학생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서 진로발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진로지도가 더욱 강조된다. 그리고 취업 관련 정보에 있어 대학생의 주요 진로·취업 정보원은 각종 매체 및 미디어(인터넷, SNS 등)가 30.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학교 교수 및 학과 사무실(20.3%) 등 순으로 나타났다[4].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수업 참여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에 수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 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사전·사후 진로성숙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강 전 진로성숙도 측정값의 평균은 3.86점, 사후 진로성숙도 측정값의 평균은 4.52점으로 진로지도 수강 후의 점수가 매우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한 진로지도 수업을 통해 진로탐색, 진로준비 등의 관련 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9-11,13]와 같이 진로지도 수업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확신성, 결정성, 준비성 등 세부적인 하위요소의 차이 검증에서도 각 요인 모두 매우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즉 진로지도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민음과 확신의 수준인 '확신성'이 향상되었고, 진로목표가 불명확하여 고민했던 상황에서[4]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방향성으로 결정력을 가지는 태도의 변화로서 '결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분야로 진입을 위한 준비행동에 해당하는 '준비성'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으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방향하거나 불명확한 진로목표로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4,14,15]. 이에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각 하위요인들의 유의미한 향상 결과는 진로지도 수업이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대학의 진로지도는 초기에는 취업지원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정규교과목으로 의무화하면서 진로 및 취업지도에 있어 대학교수의 진로 및 취업지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교수의 학생 진로지도는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21]. 따라서 대학은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성을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

순히 교과목 개설로 그치지 말고 대학교수의 학생 진로 지도 및 상담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진로상담 및 지도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10]. 이에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이나 학과 교수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및 취업전담교수제 등[28] 경직된 학사제도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또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입학-재학-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대학 내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이 일원화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진로지도 강화를 위하여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28].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대학생의 적성, 전공 등의 특성과 학년별 차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충청권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표집함에 따라 대학생을 대표로 하기에는 미흡함이 있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2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년별로 진로지도의 내용과 설계를 체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지도 교과목 수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비교집단의 부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D. E. Super.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DOI : 10.1016/0001-8791(80)90056-1
- [2] H. Y. Lee. (2008).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0(2), 201-208.
- [3] H. S. Ryu & B. L. Lee. (2013). The Effect of Creativity Personality and Hope Influencing on Career-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3(1), 69-85.
- [4] E. J. Jung. (2018). *Survey on the status of college career employment support(2018)*. Sejong : Ministry of Education·KRIVET.
- [5] M. R. Kim & S. J. Han(2018). The effects of personal, social factors, and school career experience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9), 399-405. DOI : 10.15207/JKCS.2018.9.9.399
- [6] H. J. Baek. (2013). *An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7] H. J. Cho & J. S. Baik. (2007). The effects of three step career guidance program(Three K Program)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daptation. *Youth Facility & Environment*, 5(2), 87-97.
- [8] S. Y. Jang, Y. S. Jung, A. R. Cho & J. B. Lee. (2014) *Development of a career guidance guide for students used by university professors*. Chungbuk : KIES.
- [9] S. Y. Lee & G. P. Cho. (2018). The Effects of Group Counselling Program Using MBTI and Holland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4), 427-446. DOI : 10.22251/jlcci.2018.18.24.427
- [10] D. S. An, J. H. Park, J. S. Kwan, J. U. Im & E. J. Park. (2019. December).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Career Map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using Project Management.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8, 117-139.
- [11] K. S. Lim. (2018).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mployment Readiness Behavior, and Employment Po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3), 177-193. DOI : 10.21024/pnuedi.28.3.201809.177
- [1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7). *University Career Education Status Survey(2017)*. Sejong : Ministry of Education·KRIVET.
- [13] Y. R. Youn. (2019). Analysis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reshman college student who received college career guidance program as subject cla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341-350.



- DOI : 10.21742/AJMAHS.2019.02.34
- [14] H. S. Ryu & B. L. Lee. (2013). The Effect of Creativity Personality and Hope Influencing on Career-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3(1), 69-85.
- [15] S. Y. Lee. (2014). The Effects of Self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1), 109-128.
- [16] K. H. Seo. (2016).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Major Student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3), 121-138.  
DOI : 10.20878/cshr.2016.22.3.011011011
- [17] M. S. Gwak.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and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8] E. M. Kim. (2020).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Happy Life in Adult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ity Strength and Gratitu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2), 93-100.  
DOI : 10.15207/JKCS.2020.11.2.093
- [19] Y. K. Been, C. Y. Yun. & J. S. Kim. (2015). The Effect of Portfolio-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Women's Studies*, 25(2), 41-70.  
DOI : 10.22772/pnujws.25.2.201506.41
- [20]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1). *Career guidance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Chungbuk : KEIS
- [21]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4). *Career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Career planning and Understanding the labor market-*. Chungbuk : KEIS.
- [22] S. J. Park. (2018).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Musical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Music*.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23] J. Y. Lee. (2017).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with major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207-218.  
DOI : 10.15207/JKCS.2017.8.4.207
- [24] S. H. Park. (2019). A Convergence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reign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5), 351-357.
- [25] K. M. Lee & C. H. Bu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265-273.  
DOI : 10.15207/JKCS.2017.8.3.265
- [26] M. S. Park & J. W. Park. (2018). In the Fusion Era of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79-87.  
DOI : 10.22156/CS4SMB.2018.8.1.079
- [27] G. M. Chae. (2013).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Third edition)*. Gyeonggi : YSW Pub.
- [28]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University Job Center Operation Case Book*. Chungbuk : Ministry of EL-KIES.

안 태 숙(Tae-Sook Ahn)

[정회원]



- 2002년 2월: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1년 2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4월 ~ 현재: 강원관광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 교수

- 관심분야 : 복지정책, 국제협력
- E-Mail : gloria-an@hanmail.net

유 영 주(Young-Ju Yu)

[정회원]



- 2008년 8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동원대학교 실버보건복지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복지, 교육성과
- E-Mail : bona16@tw.ac.kr